관계기관 합 동	보 도 자 료		2019년 2월 26일(화) 조간 (2. 25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행 정 안 전 부	환경재난대응과	과 장 박현용(044-205-6170) 사무관 고나단(044-205-6172)
	화학물질안전원	기 획 운 영 과	과 장 고종희(042-605-7010) 연구관 송영호(042-605-7770)

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

- 화학사고현장 실시간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화학물질안전원(원장 류연기)과 협업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사업* 추진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.

* 사업기간: '18. 8. 3.~'19. 1.30. 총 4.1억 원(행정안전부 3.5억 원, 화학물질안전원 0.6억 원)

○ 이번 사업은 작년 인천 소재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현장 상황정보를 대응기관들이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□ 주요 사업내용은 화학사고 출동차량 영상카메라 설치, 사업장 공정도 등 사고대응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, 현장 출동요원 활용을 위한 스마트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설치 등이다.

○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,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등 15개소*의 출동차량에 영상카메라를 설치하여, 현장 도착 시 영상을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송출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
< 현 행 >	< 개 선 >
▹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에서 사고 대응 기관에 적시에 필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상황 정보 부족	▹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에서 현장 영상정보 수신을 통해 현장 상황 정보 확보 및 필요 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에 영상정보 공유

* 화학물질안전원(1),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(7), 화학안전관리단(7) 등 15개소 각 1대

(참고) 현장 출동 사고대응 차량 카메라 송출 장비 설치



○ 화학사고 관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일반정보, 취급시설 개요, 전체 배치도, 공정도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*하고 화학물질안전원 상황관리 시스템에 연계하여 사고대응에 활용하도록 했다.

< 현 행 >	< 개 선 >
▹ 장외영향평가서**를 종이문서로만 제출 받고 있으므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정보를 현장 사고대응기관에 공유 애로	▹ 장외영향평가서 中 사업장 공정도, 전체 배치도 등을 전산화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고대응기관에 정보 제공

* 충남·북 지역 中 610개소의 장외영향평가서 전산 입력 완료, 향후 전국 확대('19~'20, 안전원)

**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운영자가 시설 설치 전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

(참 고) 화학사고 대응관련 사업장 DB 구축



○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, 지방·유역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등 사고현장 출동요원이 현장에서 스마트 태블릿 PC와 위성항법장치(GPS),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현장업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.

< 현 행 >	< 개 선 >
▹ 스마트폰 어플 형식의 사고상황공유앱을 이용하여 사고상황 및 화학물질 정보 등을 현장 출동요원과 공유	▹ 사고상황공유앱과 병행하여 태블릿 PC를 통해 사업장 정보, 인근 방재관련 기관, 병원, 경찰 등 유관기관 정보 추가 제공

(참고)모바일 기반(태블릿 PC) 사고현장 정보공유시스템 개발



□ 아울러, 본 사업은 올해 2월 말까지 최종 점검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.

□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“이번 사업은 재난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화학사고 주관부처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협력하여 수행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.”라며, “향후,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으로 화학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**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방·유역 환경청 현황**





